

비엔날레 2주 남았는데...손님맞이 준비 부실한 광주시

첫 인상 보여주는 광주요금소 미디어아트 '무등의 빛' 패널 일부 고장 구도심 14곳 설치한 긴급상황 대비 '스마트폴' 모니터 반 년째 미작동 K-POP 거리의 광주폴리 '투표' 6개월째 같은 질문 반복 등 관리 엉망

광주의 관문부터 도심까지 광주시가 설치한 각종 예술 작품과 편의 시설물 등이 '먹통'이거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7일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광주시가 조속히 시설들을 수리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의 관문' 무등의 빛 또 고장=26일 현재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무등의 빛'은 패널 일부가 고장난 상태다.

왼쪽 중단의 패널은 현재 상영 중인 영상과 무관한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오른쪽 상단의 일부 패널은 아예 켜지지 않아 까만 화면만 띄우고 있다.

무등의 빛은 지난 2020년 이이남 작가와 김민국 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의 협업으로 만든 폭 74m, 높이 8m의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무등의 빛이 고장나 일부 패널에서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한달만에 수리를 마쳤으나, 또다른 패널에 문제가 생겼다고 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700만원 예산을 들여 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무등의 빛은 그동안 수 차례 고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5~8월에는 강풍과 폭우로 작품을 구성하는 전자 모듈 판에 이상이 생기면서 영상 송출이 끊겼다.

시가 지난해 9월 초 수리했지만, 한달만에 또다시 고장이 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까지 재정공제보험금 9000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쳤다.

그럼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올해 2월 2회, 3월 1회, 4월 3회, 5월 1회, 7월 1회 등 8차례 추가로 고장 수리 조치를 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재정공제보험 대상에서 빠져

시비로 수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1~4차 광주폴리 28개 작품을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용 2억원에서 수리비를 충당해 쓰고 있다.

광주시 측은 "픽셀을 표시하는 전자장치 하나가 나가 결국 소모품이다. 더구나 야외에 노출돼있다 보니 최근 폭염으로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전자기기 수명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폴 장기간 '먹통'=광주시가 지난 2월께 동구 구도심 14곳에 설치한 '스마트폴'은 6개월째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다.

스마트폴은 각종 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와 보안등, 비상벨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26일 시정홍보, 기상정보, 긴급상황안내 등 영상이 재생돼야 할 스마트폴 모니터에는 전부 '디지털 사이니지(모니터) 시험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화면은 꺼진 채였다.

광주시 담당자는 "올해 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스마트폴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동구, 광주도시공사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개선, 전기차 충전소 확보,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설치, 스마트폴·AI CCTV 설치 등 4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폴 설치를 끝냈더라도 다른 단위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스마트폴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광주시는 스마트폴을 관리·운영할 주체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에 스마트폴 유지비가 배정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동구청, 광주시CCTV 관제센터, 광주



26일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 상단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무등의 빛'의 일부 패널(흰색 점선 안)이 고장나 영상이 송출되지 않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도시공사 등 사이에서 누가 운영비를 낼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년째 같은 질문...앵무새가 된 폴리=광주시 동구 충장로 K-POP 스타의 거리에 설치된 광주폴리 '투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똑같은 'K-POP 스타를 꿈꾼 적이 있나요?' 질문을 송출하고 있다.

'투표'는 지난 2013년 12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1억 2000만원 비용을 투입해 설치한 작품으로, 보행자들이 폴리 아래를 지나가면서 상단 LED에 띄워진 질문 문구에 '예', '아니오', '중립'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투표'는 지난 2021년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거쳐 2년만인 지난 2023년 11월 29일 재개장했다.

재개장 이후 1월 31일까지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K-POP 스타를 꿈꾼 적이 있나요?', '광주투표게이트에 위치한 '무등의 빛'은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이다?' 등 3개의 질문을 번갈아 송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2월부터 K-POP 스타의 거리 콘셉트에 맞춰서 문구를 송출한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질문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했다.

'투표' 질문 문구는 광주폴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제안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최근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별다른 추가 질문 문구를 추천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9월부터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관광도시와 협업해 새로운 질문 문구를 선정한 방침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26일 광주일보가 광주폴리 '투표'를 취재하자 질문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고 있나요?'로 뒤늦게 변경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나주서 요양병원 환자간 죽음 부른 말다툼

밀쳐서 숨지게 한 70대 입진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70대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같은 병원의 환자를 숨지게 한 A

(76)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5시에 나주의 한 요양병원 1층 화장실 입구에서 같은 병원 환자 B(86)씨와 말다툼 중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광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B씨는 모두 고령인데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용두동 지식묘' 안내판 파손 용의자 찾아라

차량에 치여 파손된 듯...광주 서구, 경찰 수사 의뢰키로

광주시 서구가 '서구 8경' 중의 하나인 '용두동 지식묘' 안내판 파손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23일 용두동 지식묘 앞 안내판이 훼손돼 광주서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훼손된 용두동 지식묘 안내판은 1m 높이의 나무 이정표로, 26일 현재 차량에 치여 파손된 듯 일부 부분이 세로로 갈라져 있는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관할구청에서 유지·관리 중인 시설물에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범죄"라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경각

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두동 지식묘는 청동기시대 고인돌로 1984년 2월 29일 광주시 문화유산자료 제6호로 지정됐다. 서구 또한 '서구 8경' 중 하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용두동 지식묘 가운데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고인돌은 10기이며, 남북 방향으로 줄지어 배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북방식(탁자식) 고인돌 1기가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양제철서 야외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숨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수리장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A(48)씨가 일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광양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40여분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작업책임자로 야외 작업장에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일하다 쓰러

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조측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의 부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